

하나님이 우회시키실 때

카일 라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 우회하라는 표지판을 엄청나게 후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나가고 있던 것에, 스케줄에, 저의 경우에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회해야 하는 상황은 그래서 답답할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회하는 것이 가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우회는 불가피합니다. 교량이 소실되었다거나, 그 잔해들이 도로를 막고 있다면 우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회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회로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동안, 무너진 다리를 고치거나 도로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회는 우리의 삶에 잠깐의 불편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없는 우회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회를 모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해 우회를 사용하심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17-18절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찌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을 지름길을 따라 인도하시는 대신 드라이브 코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우회를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 담판을 지을 때에 가장 당면한 이슈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던 고강도의 노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6-9절을 통해 바로가 지푸라기 공급을 중단한 이유가 모세와 아론의 개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강도의 노동으로부터 쉴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노동강도가 줄어든 것을 보고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것을 조달하게끔 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로는 그들이 매일 만들어야 할 벽돌의 수를 줄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강도는 더욱 세어져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만 결국 더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고되어진 노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5:21).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흑독함을 인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6:9).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길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의 정신적 육체적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친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지친 몸과 상한 심령이 그들을 후회에 빠지게 하는 데 그리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원망과 불평을 여러번 한 것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얼마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앞으로는 홍해와 뒤로는 추격하는 이집트 바로의 군대 사이에 있을 때에 그들이 한 말이 잘 보여줍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

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12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11-12). 또 음식이 궁핍했을 때도, 그들은 이집트를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16:3). 그리고,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17:3).

하나님은 그들이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후회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장애물이 적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3장 17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다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통해, 그들이 지쳐 연약할 때에 전쟁이라는 질고를 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사랑은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장애를 그들에게 지우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우회하게 하셨고, 우회하는 동안 전쟁도 연기되고 그 사이에 그들이 힘을 기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대적들의 위협과 생필품의 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회시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들이 실제 겪은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로 인도하심으로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회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기에서 볼 수 있는 이 간단한 이야기로 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라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계시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최고 유리한 위치에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훤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의 인생을 훤히 보시면서,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보지 못하는 장애를 피하게 하기 위해 우회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가족, 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라는 우회로를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도망자 신세라는 우회로를 가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들을 쫓아낼 때까지 고독하게 혼자 숨어지내는 우회로를 가게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영웅들조차도 마치 재교육을 시키듯이 우회로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3장 5-6절은 그들이 받은 교육의 요약된 교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용하시는 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언제’ 사용하실런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로마서 8:35-39),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고린도전서 10:13), 우리가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신다는 것(베드로전서 5:10),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히브리서 13:5-6)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가 우회로를 가고 있다면 이 약속들을 통해 인내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